



손흥민이 27일 오전 5시(한국시간) 영국 번리의 터프 무어에서 열린 번리와의 2020~2021 EPL 6라운드에서 선발 출전해 후반 31분 결승골을 터뜨리고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손흥민, 시즌 10호골 달성

EPL 번리와 경기서 후반 31분 결승골로 토트넘 1-0 승리 견인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손흥민(토트넘)이 4경기 연속골로 시즌 10호골을 달성했다.

손흥민은 27일 오전 5시(한국시간) 영국 번리의 터프 무어에서 열린 번리와의 2020~2021 EPL 6라운드에서 선발 출전해 후반 31분 결승골을 터뜨리며 토트넘의 1-0 승리를 이끌었다.

리그와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를 포함해 4경기 연속골이다.

5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리그 4라운드(2골 1도움), 19일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리그 5라운드(1골 1도움), 23일 LASK 린츠(오스트리아)와의 UEFA 유로파리그 1조 조별리그 1차전(1골)에 이어 끝맛을 이어갔다.

또 총 9경기 만에 시즌 10호골(4도움) 고지를 밟았다.

리그 6경기에서 8골(2도움), 유로파리그 예선을 포함해 3경기에서 2골(2도움)을 기록했다.

손흥민은 도미니 칼버트 르윈(에버턴·7골)을 따돌리고 리그 득점부분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후반 추가시간에 교체됐다.

토트넘(3승2무1패 승점 11)은 웨스트햄전에서 3-0으로 앞서다 3-3 무승부에 그친 충격에서 벗어나며 11위에서 5위로 경추 뛰어올랐다. 지난해 번리를 상대로 인성 최고의 골로 꼽히는 70m 질주 득점을 성공했던 손흥민은 다시 한 번 번리의 '눈 축구'에 철퇴를 가하며 강한 모습을 보였다.

손흥민은 지난해 12월 번리와의 2019~2020시즌 16라운드에서 전반 32분 토트넘 진영에서 70m가량을 질주해 득점에 성공했다. 상대 수비수 6명을 스피드와 속임 동작으로 모두 따돌리며 번리의 골네트를 갈랐다.

이 골은 영국 BBC, EPL 사무국 선정 '올해의 골'에 이름을 올렸다. 영국을 넘어 유럽 전역을 놀라게 했다.

토트넘이 고전한 경기였다.

전반에 65%~35%로 높은 점유율을 쟁겼지만 효율적이지 못했다. 번리의 밀집수비를 뚫는데 애를 먹으며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오히려 전반 중반까지 움직였던 번리가 중후반부터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번리는 전반에 5개 슈팅 중 2개를 유효슈팅으로 연결했지만 토트넘은 슈팅만 3개를 시도했을 뿐 유효슈팅은 없었다.

토트넘은 후반 12분 루카스 모우라를 빼고 에릭 라멜라를 투입해 변화를 꾀했다. 위기도 있었다.

후반 26분 코너킥 세트피스에서 제임스 타코 우스키에게 결정적인 헤더를 허용한 것. 골키퍼 요리스가 손 쓸 수 없는 곳으로 향했지만 해리 케인이 머리로 막아내 실점 위기에서 벗어났다.

손흥민은 후반 29분 배후 침투를 통해 기회를 잡았지만 상대 수비의 태클로 무위에 그쳤다.

두 번째 기회는 놓치지 않았다.

후반 31분 코너킥 세트피스에서 해리 케인이 머리로 연결한 것을 손흥민이 몸을 날리며 헤더로 연결, 꼭 닫혔던 번리의 골문을 열었다.

토트넘은 마지막까지 번리의 공세를 잘 막아 손흥민의 골을 결승골로 완성했다. /뉴시스

마스크 착용 '필수' ·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배틀그라운드 잘한다면 누구나 참가 가능

새만금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내달 28일 군산대 체육관서

LoL · 카트라이더 등 세계 종목으로

내달 11일까지 홈페이지 통해 신청

군산시가 주최하고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군산대학교가 주관하는 '군산 새만금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가 오는 11월 28일 군산대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증가하는 지역 내 e스포츠 문화수요의 충족과 생활스포츠로서의 세대 간 문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인기 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이하 LoL, 5인 팀전), 배틀그라운드(2인 듀오),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4인 팀전) 세 개 종목으로 개최한다.

대회 참가 접수는 28일부터 오는 11월 1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전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예선전은 온라인으로 오는 11월 21일 진행되고 4강 및 결승전은 오는 11월 28일 군산대학교 체육관에서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대회 당일 선수들과 관계자들의 안전을 위해 소독, 선수 대기석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체계를 갖추고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될 예정이다.

총 상금 1,000만원 규모의 이 대회는 종목별 1위부터 4위까지 군산시장상, 군산시의회의장상, 군산대학교총장상, 정부창조경제혁신센터장상이 수여된다.

두양수 문화예술과장은 "군산 새만금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전 세대가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대회"라며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사회에 이번 대회를 통해 지역이미지 제고 효과와 관광 등 연관 분야 파급효과를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참가접수와 대회에 대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www.gsesports.c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063-220-8948)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한경봉 기자



전북체육회는 최근 나블리조트와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선수들 휴식처 · 전지훈련지 활용

전북체육회, 나블리조트와 협약

비수기 기간에 더 많은 혜택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 최근 나블리조트와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 체육회와 도내 14개 시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 도내 체육인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비수기 기간에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 체육회는 체육인들의 휴식을 비롯해 선수들의 전지훈련으로 나블리조트가 적합하다고 판단,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다.

실제 나블리조트는 청정마을인 무주와 장수

에 있어 힐링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또한 덕유산 등을 머금고 있어 산악(등산)코스 등이 잘 조성 돼 있으며, 사우나와 식당 등 부대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선수들이 장기간 머물며 훈련을 진행할 수 있다.

제휴기간은 1년이며, 제휴 내용의 변경 또는 종료에 대한 명시적 의사가 없을 경우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정강선 회장은 "체육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흔쾌히 협약을 해 준 나블리조트에 감사하다"며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블리조트 서호진 대표이사 "체육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을 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리조트를 이용하는 모든 체육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아름다운 장수의 가을풍경이 여러분의 추억 여행행사를 책임집니다!

장수만세

NAVER 장수군청 검색